

코로나 시국 사교육 받은 학생 줄었다

교육부·통계청, '2020 초·중·고 사교육비' 발표 제주학생 참여율 65.9%... 전년보다 5.9%p 하락

코로나19 속 지난해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3~5월

과 7~9월 6개월간의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조사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65.9%로 2019년(71.8%)보다 5.9%포인트 하락했다. 참여율은 초등학교

71.5%(2019년 81.9%), 중학교 62.6%(66.5%), 고등학교 57.4%(55.6%) 순이다.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줄었지만 고등학생은 소폭 상승했다.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학교급별 증감폭이 달랐다. 초·중학생은 22만8000원, 2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000원, 1만

6000원 줄었지만 고등학생은 30만5000원으로 2만3000원 늘었다. 참여학생으로만 좁혀보면 전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5000원으로, 전년 36만2000원보다 늘었다. 초등학교는 32만원, 중학생은 45만3000원, 고등학생은 53만1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할때 각각 3만8000원, 2000원, 2만4000원 증가했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재학생 코로나19 확진 여과 '원격수업' 전환 학교 늘어

도내 중·고등학교 등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자가격리로 해당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오전 중(2학년)과 표선중(3학년), 제주여고(3학년), 제주중앙고(2학년), 성산고(1학년), 세화고(1학년), 제주고(3학년) 등 7개교가 추가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해당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제주여상은 10일 하루 특별방역으로 전체 학년 대상 원격수업을, 11일부터 19일까지는 1·2학년년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3학년은 정상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 8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던 아라초병설유치원(전체), 아라초(전체), 남광초(3학년), 제주여중(2학년), 제주외고(전체), 제주제일고(2학년)는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등교수업이 재개됐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알레르기질환 원인" 삼나무 꽃가루 주의보

환경부 지정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는 9일 봄철 알레르기질환 원인인 삼나무 꽃가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물 기다리는 강태공들 9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포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물을 기대하며 낚시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환경보건센터에 따르면 봄철에 발생하는 삼나무 꽃가루는 공기 중 바람에 의해 날려 전파되고 항원성이 강해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킨다.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은 매해 봄철 꽃가루 채집기를 이용해 공기 중에 퍼지는 삼나무 꽃가루의 발생 분포 조사와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 개화 시기는 서귀포시가 지난 1월 23일, 제주시가 1월 24일로 이후 꽃가루가 날리는 것으로 관찰됐다. 삼나무 꽃가루가 높은 농도로 강한 항원성을 보이는 시기는 2월부터 3월까지이고 4월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날리게 된다.

환경보건센터는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해 꽃가루 발생량이 많은 오전 10시~오후 2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했다. 또 외출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진선희기자

74년전인 1947년 3월 10일, 제주에서는... 3·1절 발포사건 규명 민·관 총파업

당시 군정 제주를 '붉은 섬'으로 낙인... 2500여명 고초

"이 파업에 관공리는 물론 제주출신 순경들까지 참가한 것은 제주의 특성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조금도 놀랄 것이 없는 일이다." 경향신문 1947년 4월 2일자 '파업 후의 제주도 답사 현지보고'. 74년 전인 1947년 3월 10일 제주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민·관 총파업'이 시작됐다.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3·1절 발포사건(경찰 발포로 도민 6명 사망·6명 중상)' 해결을 촉구하며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에 달하는 166개 기관 및 단체에서 4만1211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당시 파업에 동참했던 제주도청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평화군중에 대한 발표는 과거의 역사에 유례가 없으며, 일제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포악"이라고 지적하며 >경찰 고문 폐지 >(3·1절 발포사건) 책임자 및 발표경관 처벌 >경찰수뇌부 사임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 보장 등을 촉구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파업이었지만, 당시 군정당국은 오히려 제주를 '붉은 섬'으로 낙인 찍는 계기로 삼았다.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대거 제주에 파견해 검거공세를 벌인 것이다. 이로 인해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날 때까지 약 2500명의 제주도민이 무차별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이후에도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조선에서 처음 보는 관공리의 총파업(3·10 민관총파업)'이 74년째를 맞아 제주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민주노동 제주본부는 10일 오후 7시 서귀포시 민원실 앞에서 '제주 3·10 총파업 정신계승 74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앞서서 나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낭송과 영상 상영, 노래 공연 등 총파업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승용차-승합차 충돌 6명 중경상

9일 오전 0시45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용당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량이 충돌해 6명(중상 2, 경상 4)이 다쳤다. 119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32)씨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의식지하 상태였

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B(55)씨는 목을 다쳐 이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승합차 동승자 4명도 다리와 골절, 무릎 등에 경상을 입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애월읍 클린하우스서 화재

9일 오전 10시55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분리수거함 4개가 소실되는 등 총 26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민성기자

밍크고래 사체 발견자 900만원 황제

5일 하귀 해안에서 발견해경 "불법포획 흔적없어 최초 발견자에게 인계해"

제주에서 발견된 밍크고래(사진) 사체가 900만원에 팔렸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1시57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된 수컷 밍크고래 사체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발견자인 A씨에게 인계됐다. 밍크고래 사체는 길이 340cm·둘레 170cm·무게 250kg이었다. 이후 다음날인 6일 A씨는 제주시 한림항에서 한 어업인에게

900만원에 밍크고래를 판매했다. 해당 어업인은 밍크고래 사체를 고래 위판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울산으로 옮겨 재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19일 경북 영덕 강구수협에서는 길이 459cm·둘레 255cm의 밍크고래(불법포획 흔적 없음)가 5030만원에 위판된 바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 제2공항은 제주 미래의 희망이다"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제주 서부지역과 제주시는 '반대'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토지수용과 소음 피해 등을 받는 제주 동부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을 주민들은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다. 이는 제주지역 균형발전과 포화상태인 제주 하늘 길 분산 및 하늘 길 확대 등으로 인한 미래의 제주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서귀포시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더 이상 사업추진을 망설이지 말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제 찬반논쟁으로 인한 소모전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 이상 도민사회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을 주민을 비롯해 서귀포 시민 다수가 하루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제주 산 남북,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둘, 제주 출신 정치인들은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최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제주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선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전국 지역 곳곳에서 공항 사업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지만 제주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주지역 정치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표 섣불리 눈치에서 벗어나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지역을 떠나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제2공항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도민 모두가 제주 미래를 위한 제2공항 필요성을 계속 소리 높여 알려야 한다.
제주 제2공항! 제주 미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021. 3.

서귀포시관광협의회 회장 양광순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 양영일	제주상공회의소서귀포상공회 회장 김창훈	서귀포시체육회 회장 김태문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서귀포시협의회 회장 허상우	서귀포시건설협의회 회장 고만철	서귀포시건축사회 회장 양수웅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 회장 강영식
서귀포시노인회 회장 강창익	서귀포시연합청년회 회장 고권필	서귀포시재향군인회 회장 현종우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용민
서귀포시중정로상가번영회 회장 임상우	한국자유총연맹서귀포지회 수석부회장 문한성	서귀포항토요일시장상인회 회장 고만섭	서귀포청년회의소 회장 강창문
요식업중앙회서귀포지부 회장 이상철	서귀포시새마을협의회 회장 변봉남	서귀포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오경석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회장 나성순
직·공정새마을운동서귀포시협의회 회장 백성익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회장 강금순	중소기업서귀포융합회 회장 양문석	